



## 로마서 7장에 대한 칼빈의 이해\*

빌헬름 노이저

(전 독일빈스터대학 교수, 현 세계칼빈학회 상임총무)

“로마서 7장”이란 로마서 7장 15, 18b, 19을 가리키는 축약 형태입니다. 15절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라고 되어 있으며, 18b-19절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그의 지금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혹은 율법 아래 있던 이전의 그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회개 이전의 바울입니까, 혹은 회개 이후의 바울입니까? 혹은 다시 한번 더 묻는다면, 여기서 한 신앙인이 자신의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불신자가 그 자신의 무능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 문제가 신약 해석자들을 항상 매우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 본 강의안은 1998년 9월 1일 본교 개교 50주년 기념 제2회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다.(번역: 김성봉 교수)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 봅시다.

1. 어느 해석이 오늘날 신약 연구에 있어서 바른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기서 미리 말해 두자면, “연구가의 다수”는 로마서 7장이 회개하지 않은 바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그럼에도 칼빈은 로마서 7장을 믿는 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칼빈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데, 칼빈이 “성화의 신학자”일진대, 그가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서 7장이 믿는 자에 대하여 말한다면, 거기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믿는 자의 무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다른 데서는 성화를 강조하여 믿는 자의 능함을 강조하는 데 비하여, 만약 바울이 거기서 선행에 대한 이같은 무능을 제시하였다면, 칼빈은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3. 오늘의 선포에 있어서 적어도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로마서 7:1-24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야 비로소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의미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율법과 죄의 노예상태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24절에서는 그 사람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면이 오늘의 선포에 있어서 분명히 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 I.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

여기서는 단지 주된 문제만 제기될 것이고, 기타 지엽적인 문제는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다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1-6절.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유효하게 간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변호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은 6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2. 7-12절. 유대인들의 첫 번째 이의: 율법이 죄로 이끌지 않느냐?(7) 이에 대한 답변은 11절과 12절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책임이 있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3. 13-20절(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된 단락임). 유대인들의 두 번째 이의: 율법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죽음을 유발시키지 않는가?(13) 이에 대한 답변이 20절에 나오는데, 사망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4. 21-24절. 내 안에 있는 법과 내 지체 안에 있는 법이 단락의 마지막 절에서 다시금 답변이 나오는데, 내 지체 안에 있는 법이란 - 이 경우에 법이란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데 - 즉 죄가 나를 잃어 버려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에 하나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이미 인용한대로). 누가 나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

을 가르치고,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새생명으로 자유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과 : 만약 로마서 7장의 끝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바울은 로마서 7:1-24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5, 18a와 19절이 믿는 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는 회개치 않은 자라거나, 불신자라거나 하는 답변이 너무 급하게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회개하기 이전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옛 언약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구원의 길로 이해했던 유대인으로서의 경험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절망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의 대화의 상대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는 거절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그 때를 돌이켜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개혁주의 학술원

### II. 교부들과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로마서 7장에 대한 설명

그들의 설명에 대하여 먼저 다루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칼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고대 교회에서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 따르기 어려운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7장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의 율법의 유효성을 옹호하는 자인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초기의 어거스틴도 이 해석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펠라기안주의자들이 일어나서

20 / 신학지평 제8집 · 1998 여름 · 가을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의 협력을 가르쳤습니다. 409년에 펠라기우스의 주석이 나왔으며, 412년부터는 어거스틴이 로마서 7장을 신자와 연관시켰습니다. 그의 저서 *Retractationes*(거절)에서 그는 그의 이전 견해를 아주 인상적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견해가 이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펠라기우스와 그의 해설자는 바울의 말에 나오는 의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언급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시켰습니다. 바울은 쓰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15), “원함은 내게 있으나”(18),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21)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로마서 7:21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그 사람) 어쩔 수 없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죄에 이끌렸다.” 바울이 의지에 대하여 말하였고, 몇 가지 사항은 그(펠라기우스)가 신뢰할만하다는 사실이 이의의 여지가 없는 바이지만,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바 대로 어거스틴은 펠라기안주의자들의 이 교리에 대하여 가혹하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독적인 효력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하여 영원한 구원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7:13-24절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의 제한을 보기보다 이 구절이 단지 중생자와 연관된다고 하는 입장을 채택하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조차도 - 그가 이제 설명하기를 - 온전한 죄인이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생자가 죄에 사로잡히는 것을 그는 어쨌든 내적인 욕구에 제한합니다. 정욕에 대하여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제 7계명과 10계명을 근거로 하여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등. 정욕은 신자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므로 온전히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서 7:15, 18 그리고 19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회개치 않은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에 비하여 어거스틴은 거기서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죄에 대하여 말한다고 여기며, 이러한 사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견해를 바꾼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동안 이러한 일반적인 오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단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한 뒤에, 그가 잘못 가르쳤던 것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 여러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그 단락이 중생자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중생자에게 적용하였습니다.

### III. 로마서 7장에 대한 칼빈의 해석

먼저 루터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그래야만 칼빈의 특징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역시 후기 어거스틴을 따르고 있으며 로마서 7장에서 중생자의 삶이 기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과 영의 지속적인 투쟁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러나 육과 영이 믿는 자 안에서 어거스틴이 가르친 대로 차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가 전적으로 육체요 전적으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25절에 대하여 루터는 다음과 같이 묵상합니다. “보라,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 섬기며 죄의 법도 섬긴다. 그는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다 (simul justus et simul peccator). ...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덮고 있으며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죄인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욕 없이 지내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마치 환자가 의사의 간호 아래 있는 것과 같기 때

문이다.”

칼빈은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이미 언급한 대로 로마서 7장에 대하여 중생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과 루터의 견해를 공유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저 펠라기안주의와 모든 카톨릭적인 공로주의에 대한 가혹한 거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7:15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케변가들은 그들이 자유의지를 설명하려 하거나 우리의 본성의 힘을 분명히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구절에 호소한다.” 그 공동적인 대적이 그를 어거스틴과 루터와 함께 묶어 준 셈입니다. 바른 해석을 그 역시 알지 못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영향받았는데, 말하자면 어거스틴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의 독특성이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그가 전적으로 뛰어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루터가 말한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simul justus et simul peccator)”이라는 형식을 결코 쓰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가르칩니다. 신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롭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의 형식은 “점점 더 많이(magis et magis)”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는 경우를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가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즉 칼빈은 개개의 문장이나 개념들을 중생자들에게 연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연관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서 7장을 신자들에게 연관시키는 그 자신의 원칙을 관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깊은 상실에 대한 발언을 신자들에게 연관시키지 않으므로, 그는 신자들의 성

화에 대한 발언이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14b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지 자연인에게만(“von Natur aus”) 해당되는데, 이 말은 모태로부터 그리고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입니다.

b.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적으로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율법이 사망을 일으키며, 중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율법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 육체가 율법을 억제하며, 그리하여 새로운 삶이란 없다. 왜 칼빈은 15절에서 율법과 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며 “전적으로 육적인 사람”과 “중생된 사람”을 구별합니까? 칼빈의 생각에 의하면 15절은 육적인 사람으로부터 중생된 사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의 투쟁은 단지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실” 동안 만이라는 것입니다. 주석적으로 보면, 칼빈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기술한 중생자의 놀라운 상태는 단지 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하나의 과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의 발언이 분명히 예리함을 얻은 셈입니다.

c.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나”와 “죄”를 나누면서 다시 본문을 약화시킵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으로 방향 지어진 의지가 육체의 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증거하고자 한다. ... 그는 여기서 죄가 그를 완전히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에



24 / 신학지평 제8집 · 1998 여름 · 가을

비하여 바울은 내가 전적으로 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d. 18a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람의 “자연상태(von der Natur)”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Fleisch)”는 단지 회개치 않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 해석을 강조하는데, 그는 18b에서 앞 구절에 대한 “교정(Berichtigung)”을 보고 있습니다. 18b에서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의견에 의하면 그 “교정”은 “행한다(vollbringen)”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만족케 한다거나 완수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한 것이 (중생한) 사람 속에 숨어 있는데, 단지 그가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katergazomai*를 라틴어인 불가타는 *perficere*라고 번역하고, 루터는 *vollbringen*으로, 칼빈은 *perficere*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개념은 이러한 번역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 13, 15, 17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단어가 “행하다(*tuen*)”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불가타: *operari, facere*; 칼빈은 8절은 *eficere*로, 13절은 *operari*로, 15절과 20절은 *operari*와 *facere*로, 17절은 *operari*로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 6:13절에서만 *katergazomai*가 *perficere*의 의미를 가지며, 벰전 4:3절에서는 *consummare*의 뜻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서 7:18b에서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함이란 전혀 효력없는 선에 대한 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예의 실천이 항상 원함 뒤에 머물러 있음”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e.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되어 있는데, 중생자는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건져내랴”라는 그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즉 누가 나를 “뽑아 내겠느냐?”(eripere)는 말로. 그러므로 칼빈은 그 사람을 신자로 연관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본문을 수정하도록 강요 되어집니다.

결과 : 칼빈은 - 서구의 전통에 서서 - 로마서 7장을 중생자들에게 연관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을 가리켜 “육신(Fleisch)”이라고 한 그 표현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14, 15, 17, 18절). 둘째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 대신에 “온전히 이루지 않는다”는 말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18b). 셋째로, “건져내랴”라는 말 대신에 “뽑아내랴”라는 말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본문에 대한) 아주 무리한 개입입니다.

#### IV. 로마서 7장과 그리스도인의 성화

칼빈의 해석이 그의 사고의 방향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음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이 중생자의 성화를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 안에 집어 넣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멀리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가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이전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침침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할 것을 발견한 중생자의 선행을 확실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바울과는 반대로 성화를 본문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단락들을 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a. 15절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불경한 자와 경건한 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별이 있다. 불경한 자들은 ... 이미 인생에서 멸망의 표상을 받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에 대한 끊임없는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내적 본질로부터의 실질적인 반대 없이 죄를 섬기고 있다. ... 이에 비하여 경건한 자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새로움이 시작되었으며, 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들 마음의 본래적 추구는 하나님을 지향하며, 이 추구는 하늘의 의를 찾으며, 죄에 대하여 미움으로 가득차서 누우친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 존재의 나머지를 그들은 다시 땅으로 잡아당긴다. ... 새로움은 인생에서는 단지 시작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며, 육체의 나머지는 남게 된다.” 중생자 안에는 단지 “죄의 나머지”만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었습니다.

b. 15절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원하고 본래는 나 자신도 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가 어느 정도 그의 추구 가운데서 피곤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 안에 영의 많은 은혜가 살아 있는 신자를 희미하게나마 제시한다.”

c. 17절에 대하여는 “만약 그가 말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인데, 바울은 죄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단지 마음의 한 부분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본문이 그 자신을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d. 18절에 대하여는 “그러나 선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 “신자는 육체의 남은 부분과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영향 때

문에 내적으로 분열된 듯이 보인다.”

결과 :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로마서 7장도 역시 중생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칼빈은 성화의 교리를 이 본문의 해석에다 집어넣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그 이유입니다. 첫째로, 여기서 죄는 단지 “죄의 남은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중생자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율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비록 로마서 7장 본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화의 신학을 굳게 붙잡습니다.

마틴 부처, 볼프강 무스쿨루스와 후기의 경건주의자들은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로마서 7장을 중생자와 연관짓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칼빈이 중간 입장을 취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을 중생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회개치 않은 자와 상관되는 중요한 표현들을 가려냅니다(“육적인 [fleischlich],” “육체[Fleisch]”, 14절과 18절).

## V. 오늘의 선포에 있어서의 로마서 7장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우리는 오늘 칼빈의 관심사에 동의해야만 할 것입니다만, 그의 해석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1-24절은 죄와 율법의 노예상태 아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노예상태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24절과 25절을 진심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8장도 역시 적용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거기에서 칼빈





28 / 빌헬름 노이저 · 로마서 7장에 대한 칼빈의 이해

의 관심사인 신자의 성화가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7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날마다 겪는 경험으로 말하자면 루터가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칭의된 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아닙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죄에 빠지는 일이 명백하며,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그 칭호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의 끝 부분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21) 6:18절에도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여기서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경험이란 성령에 대한 약속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대한 약속에 반대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지,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루터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시험받는 자(simul iustus, simul tentatus)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을 받으며 또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루터의 형식을 쓰지 않고 바울과 함께 은혜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